

“계절마다 예술이 살아 숨쉬는 ‘리듬의 거리’ 꿈꿔요”

‘궁동 1987’ 프로젝트 이끄는 남궁윤 예술총감독 입주작가 전시·빈집 프로젝트 등 10월까지 진행 “지속 가능성 중요... 예술가·주민·행정 소통해야”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는 80년대부터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광주 예술의 중심을 이루던 곳이다. 당시 호남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조성됐으며, 한때는 거리가 북적일 만큼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도청 이전과 도심 공동화 현상이 맞물려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개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펼쳐져 시민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궁 감독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이지만 행사 종료는 12월로 예상한다”며 “전체 개막에 앞서 개별적인 전시는 오픈을 하고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가 중심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예술의 거리라는 공간이 단순히 소비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술이 스며드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는 데 방향성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궁동은 상권, 거주지, 예술 공간이 겹쳐 있는 복합적인 지역이라 협업 없이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어렵다.

남궁 감독은 “예술가는 시민의 삶과 가까워지고, 시민은 예술의 언어와 친근해지며, 행정은 그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함께 사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궁동1987’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계절마다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리로서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예술의 거리 입주작가들이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재해석한 ‘빈집 프로젝트’를, 7월에는 신도원 작가의 미디어 퍼포먼스 ‘아트로키 프로젝트’ 레지던시를 진행했다. 또한 예술의 거리 입주작가 19인의 전시와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전시다방’ 갤러리, 고(故) 양수아·최병오 화백의 유작전이 이어졌다.

최근 예술의 거리에 깃든 역사와 정신을 되살리고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지속 가능한 예술의 플랫폼 품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궁동 1987’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5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궁동 1987’이 지난 2일 예술의 거리에 전시 개막식을 열고 10월까지 일정에 돌입했다.

현대무용과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남궁 감독은 그동안 도시와 예술,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예술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고, 궁동이라는 오래된 거리에서 ‘새로운 예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는 말에서 조심스럽게 변화의 가능성이 느껴진다.

지난 2일 ‘빛의 거리’를 주제로 진행된 개막 행사에서는 야간 미디어아트를 비롯해 이벤트존, 10여

8월에는 퍼포먼스 아티스트 임택준의 창작 실험실 프로젝트, 9월에는 서울 홍대에서 사운드아트 전시로 불리는 이한주 작가가 참여하는 ‘요기가 갤러리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독일·벨기에 등 해외 작가들과의 국제 아트 교류전이 열려 스트리트 컨템포러리 아트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이나 공공문화사업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예술가의 기획과 실행 권한을 보장하며 진행된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간의 흥행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이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과 관계의 축적이 필요하지요. 예술가, 상인, 주민, 행정이 서로를 신뢰하며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꾸준히 소통해야죠.”

남궁 감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예술적 시도가 서로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예술이 도구로 소비되지 않고, 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인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성과 예술성”을 함께 존중하는 문화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의 거리는 단순히 꾸며진 거리를 넘어 예술가들이 머무르고, 창작하며, 이웃과 관계 맺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예술가에게 충분한 시간과 권한, 그리고 실패할 자유까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영철발레포에마,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외판점에 홀로 밀려온 한 남자. 문명의 소음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바람과 나무, 하늘과 마주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섬세한 몸짓으로 풀어낸 창작발레 한 편이 무대에 오른다.

문영철발레포에마는 오는 23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총 2차례에 걸쳐 창작발레 ‘표류’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공주문화재단의 ‘2025 우수공연 초청기획’의 첫 번째 작품으로, 자연의 위대함과 그로부터 받는 위안을 무용 언어로 표현했다.

문영철발레포에마는 2003년 창단된 창작발레 전문단체로, 단명명 ‘포에마(Poema)’는 ‘시(Poem)’를 뜻한다. 전·현직 국립발레단 출신 무용수들과 발레 전공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2004년 서울무용제 대상, 2009년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상, 2014년 GDF 무용제 그랑프리 등 국내외 무대에서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왔다.

이번 작품은 외판점에 홀로 떠밀려 온 한 남자가 자연과 마주하며 내면의 변화를 겪는 여정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관계를

를 성찰한다. 클래식 발레를 기반으로 한 동작과 서정적인 서사가 어우러져 시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안무가 문영철을 중심으로 허서명·김상진·김태연·장운서 등 주역 무용수, 김철화 등 7명의 솔리스트, 고원경 등 18명의 코르도 발레가 참여한다. 군무의 화려함과 독무의 절제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공연예술 지역 유치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총 3개 작품을 초청한다. 오는 9월 6일에는 극단 코너스톤의 연극 ‘맹’, 11월 15일에는 전통음악과 현대무용이 결합된 ‘오국×Resurrection’이 예정돼 있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무용 언어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준 높은 창작발레”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우수 공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소외계층 10% 무료 초청, 7세 이상 관람, 입장료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 2일 개막식에서 열렸던 ‘미디어아트 공연 신도원 & EDM 공연 바가지 바이퍼스13’ 공연(조이댄스 K. pop dance) 장면. <남궁윤 총예술감독 제공>



빈집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린 작가 임택준의 ‘니체와의 대화’ 전시 퍼포먼스. <남궁윤 예술총감독 제공>



‘소리’



‘소리’

수묵의 가치... 현란한 색채를 취하다

진도 출신 박항환 초대전, 13~24일 서울 세종뮤지엄갤러리

가치와 현학적인 해석 대신 적극적으로 현란하며 표현적인 색채를 취한다.

전시작들은 10~20호에서부터 200호가 넘는 40여 점의 대작들로 구성된다. 전정은 ‘소리’라는 테마에 ‘윙윙한 꽃밭, 즐거운 웃음판’이라는 부제를 부쳤다. 상념의 주제인 작가 자신과 객체인 오보제들을 유기적인 소리로 연결하는 청각적 구도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전시회 발문에서 “화면에는 하나같이 윙윙한 꽃밭의 향기가 남치고, 찬란히 기쁨을 터뜨리는 즐거운 웃음판이 벌어진다. 연발 사이에서 오리가 뛰놀고, 폭죽 터진 매화동산에서는 멧

새들이 깔깔대며 소리판을 벌인다”고 적었다.

전정은 “법고와 창신은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을 계승하되 변화의 새로움을 잊지 않는 생명력을 작품에 불어넣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세상을 건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라며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윙윙한 꽃밭을 보고 즐거운 웃음으로 하루를 건넌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정은 미국 LA타이그레시화랑 초대전 등 20여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진도군 전정박항환 미술관 명예관장, 한국미술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전경. <운주사문화관 제공>

운주사 설화 ‘바다거북 바로알기’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9일 초·중생 대상 교육

‘천불전탑의 신비’ 화순 운주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운주도사가 매일 산에 올라 기도를 올린 어느 날, 그 간절함에 감명을 받은 천체가 황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내려 보내 천 개의 불상과 천 개의 탑을 세우도록 했다는 것이다. 운주도사는 이 기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거북이로 변신해 사람들을 등에 태우고 다녔고, 그렇게 부처의 덕을 전파했다고 전해진다.

화순의 설화를 생애 교육과 결합한 융합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초등·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바다거북 바로알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주사 설화 속 바다거북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해양 생물인 바다거북의 생태와 보호 필요성에 대해 배우는 체험 중심의 교육 콘텐츠다.

프로그램은 바다거북의 생김새와 성장 과정, 서식 환경과 멸종 위기 요인 등 해양 생태에 대한 영상 해설로 시작된다.

이후 참가자들은 물고기 골격염색표본을 관찰하며 키링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생물의 구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신비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 후 완성된 골격염색 키링은 개인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화순군 문화예술과 강삼영 과장은 “운주사의 이야기를 생태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관이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매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비 무료, 네이버 플레이스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